

-기 마련이다

~기 마련이다, 당연히 ~하게 되어 있다

고정된 -기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. 사물의 이치상 어떤 일이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, 다음 표현과 쌍둥이 같은 관계입니다: -(으)ㄴ/는 법이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기 마련이다	실수하다 → 실수하기 마련이에요
같은 뜻의 변이형	-게 마련이다	실수하게 마련이에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기 마련이다	힘들기 마련이에요
이다	-이기 마련이다	처음이기 마련이에요
시제 불가	어간만 씀	실수했기 마련이다(×)
쓸 수 없음	단일 사건	어제 늦기 마련이었다(×)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어간에 -기 마련이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 변이형 -게 마련이다도 똑같이 맞고 똑같이 흔히 쓰입니다.

세상의 이치상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: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. 위로의 말로 자주 쓰이며, 실수는 당신 탓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위양스를 줍니다.

법이다와 마찬가지로 단일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. 어제 늦기 마련이었어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

두 표현 중 법이라는 규칙을, 마련이라는 필연성을 나타냅니다. 실제로는 서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고, 대부분의 문장에서 어느 쪽이든 자연스럽게 됩니다.

■ 예문

- 1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.
- 2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기 마련입니다.
- 3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지요.
- 4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.
- 5 직접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에요.
- 6 힘든 일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법이다
법이라는 규칙처럼 말하고, 마련이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말합니다. 대부분의 문장에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.

실수하는 법이다. (그것이 이치다) / 실수하기 마련이다. (그렇게 되기 마련이다)

-기 십상이다
십상이다도 일어날 법한 결과를 예측하지만, 나쁜결과를 가리키며 위로하기보다는 경고합니다.

실수하기 마련이에요. (누구나 실수한다) / 실수하기 십상이에요. (실수하기 쉽다)

당연히
부사 당연히는 당연함을 직접 단언합니다. 마련이라는 그것을 서술어에 담아 더 사색적으로 들립니다.

당연히 힘들어요. / 힘들기 마련이에요.

■ 주의

- × 어제 늦기 마련이었어요.
○ **어제는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.**
마련이라는 일반적인 필연성을 나타냅니다. 과거의 단일 사건에는 다른 구문이 필요합니다.
- × 사람은 누구나 실수했기 마련이에요.
○ **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.**
-기는 시제를 받지 않습니다. 시간을 초월한 진술이므로 어간만으로 충분합니다.
- × 처음기 마련이에요.
○ **처음이기 마련이에요.**
명사에는 -기도 하다, -거든요와 마찬가지로 먼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야 합니다.